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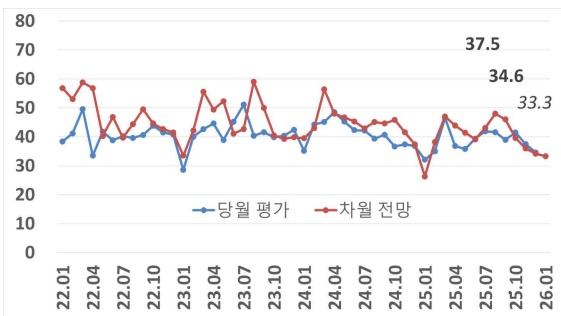
I. 2025년 12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6년 1월 전망

■ 12월의 경기평가는 하락, 차월도 악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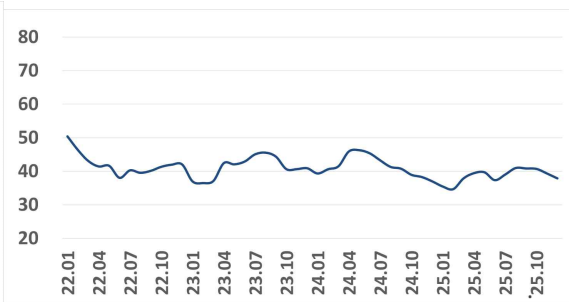
- 12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4.6으로 전월(37.5)에 이어 하락추세가 지속됨(-2.9p). 이는 전년 동월(36.8)과 비교적 유사한 수준이며(-2.2p), 차월(33.3)에도 별다른 개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1.3p).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현장안전 강화 등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증가, 연말·연초의 공사발주 감소,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경쟁심화, 기능인력의 수급문제 등이 지적됨.
- 수도권은 28.6(27.7→28.6)으로 전월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0.9p), 지방은 37.3(41.9→37.3)으로 소폭 하락함(-4.6p).

〈표-1〉 2025년 12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6년 1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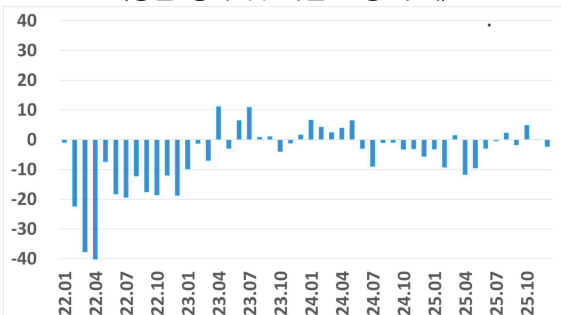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5년 12월 평가	34.6	36.8	28.6	37.3	21.9	44.8
2026년 1월 전망	33.3	26.3	42.9	29.1	40.6	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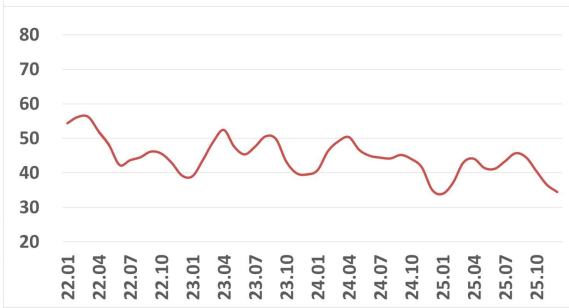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전망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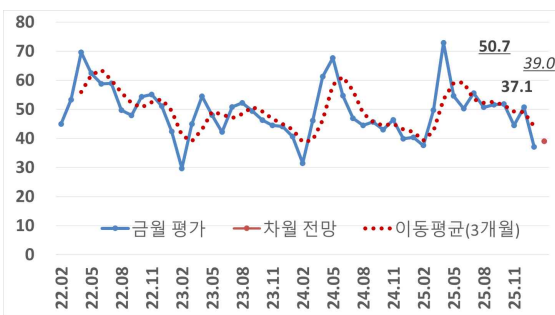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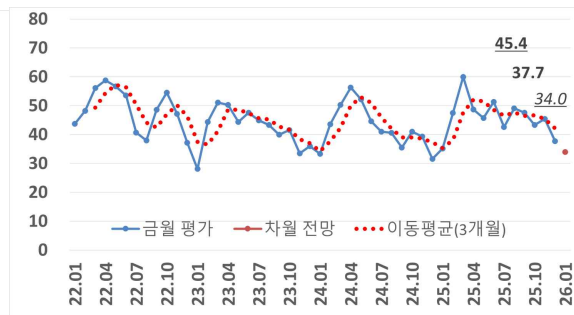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37.1(50.7→37.1)로 전월보다 크게 하락했으며(-13.6p) 이는 전년 동월(40.4)보다도 소폭 낮은 수준임(-3.3p). 다만 일부 응답업체들은 금년 상반기의 예산 조기집행 및 경기상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보였음. 하도급수주도 37.7(45.4→37.7)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7.7p), 차월에도 개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6.0→49.0)의 하락폭이 컸으며(-17.0p), 지방(43.8→31.8)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12.0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70.2→65.3)이 소폭 하락했으며(-4.9p). 지방(34.3→25.5)은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됨(-8.8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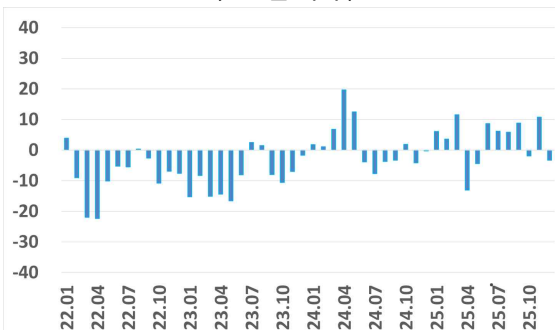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5년 12월 평가	37.1	40.4	49.0	31.8	56.3	34.5
	2026년 1월 전망	39.0	36.3	61.2	29.1	71.9	34.5
하도급 수주	2025년 12월 평가	37.7	31.6	65.3	25.5	75.0	32.8
	2026년 1월 전망	34.0	32.2	55.1	24.5	59.4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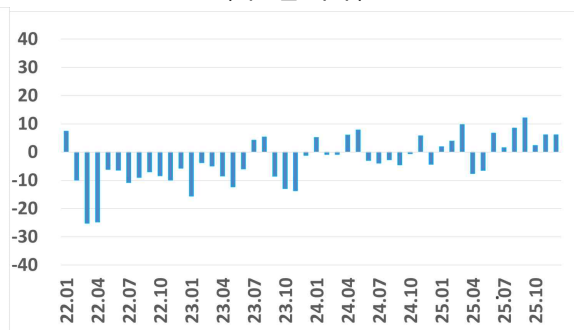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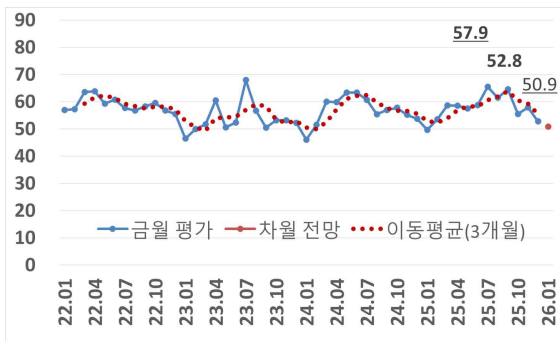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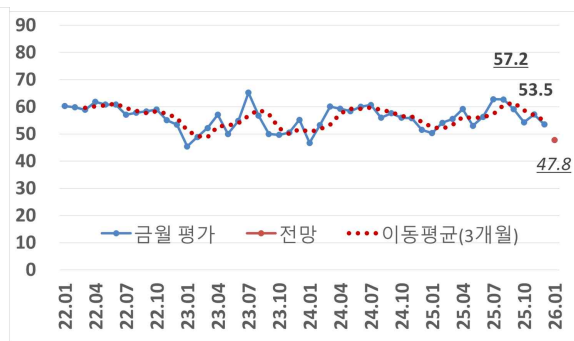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2.8(57.9→52.8)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5.1p), 차월(50.9)에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1.9p). 응답업체들은 건설공사의 수주감소와 더불어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함.
 - 수도권(59.6→53.1)은 전월 대비 하락(-6.5p), 지방(57.1→52.7)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4.4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3.5(57.2→53.5)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지만(-3.7p), 전년 동월(51.5)과 큰 차이는 아니었음(+2.0p). 차월(47.8)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전망됨(-5.7p).
 - 수도권(63.8→63.3)은 전월 수준(-0.5p)을 유지, 지방(54.3→49.1)은 하락함(-5.2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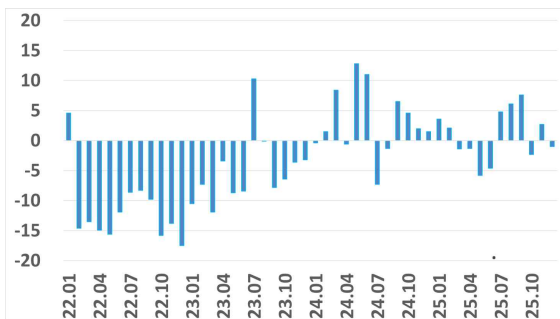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5년 12월 평가	52.8	53.8	53.1	52.7	50.0	58.6
	2026년 1월 전망	50.9	43.3	63.3	45.5	65.6	53.4
자금조달	2025년 12월 평가	53.5	51.5	63.3	49.1	62.5	58.6
	2026년 1월 전망	47.8	42.7	57.1	43.6	59.4	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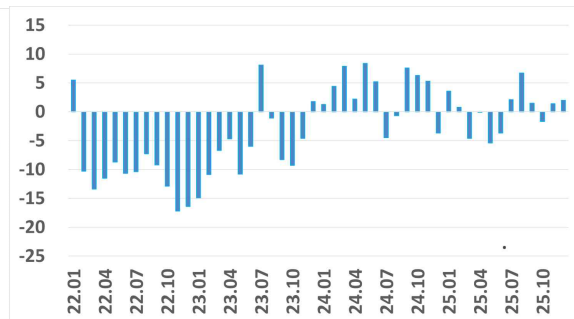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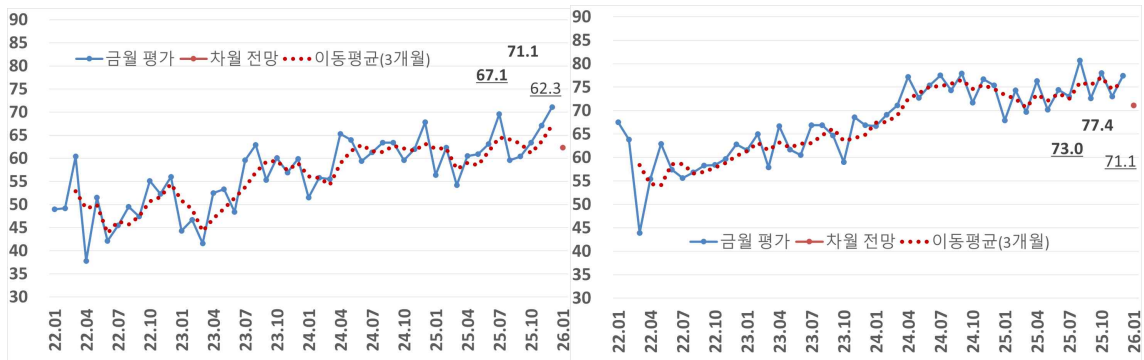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소폭 상승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71.1(67.1→71.1)로 소폭 상승함(+4.0p). 이는 전년 동월(67.8)보다 높은 수준이지만(+3.3p), 여전히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원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에 전반적인 업황의 개선으로 판단하기는 충분치 못함.
 - 수도권(63.8→63.3)은 전월과 유사(-0.5p), 지방(68.6→74.5)은 상승함(+5.9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7.4(73.0→77.4)로 상승했으며(+4.4p), 전년 동월(75.4)보다도 높았음(+2.0p). 현장관리자로 투입가능한 젊은 기술인력의 수급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함.
 - 수도권(61.7→65.3)은 상승(+3.6p), 지방(78.1→82.7)도 상승함(+4.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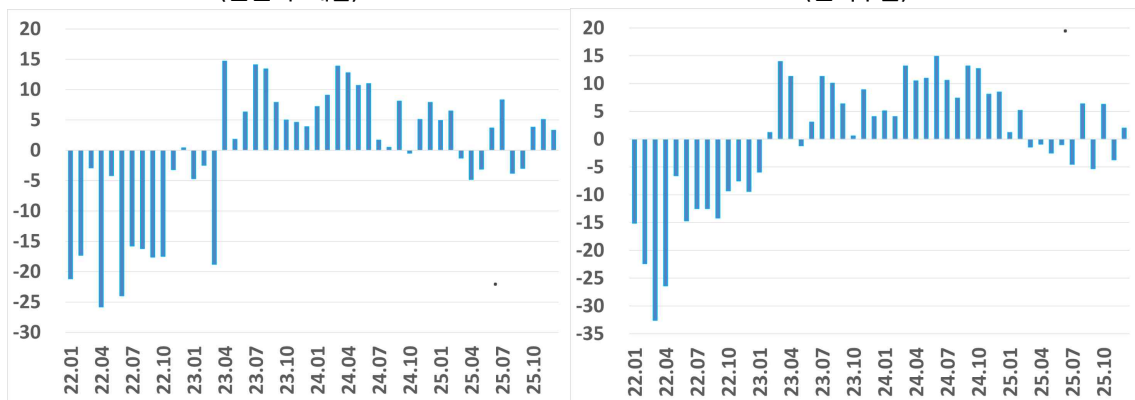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5년 12월 평가	71.1	67.8	63.3	74.5	50.0	94.8
	2026년 1월 전망	62.3	55.6	59.2	63.6	53.1	82.8
인력수급	2025년 12월 평가	77.4	75.4	65.3	82.7	62.5	103.4
	2026년 1월 전망	71.1	73.1	57.1	77.3	56.3	87.9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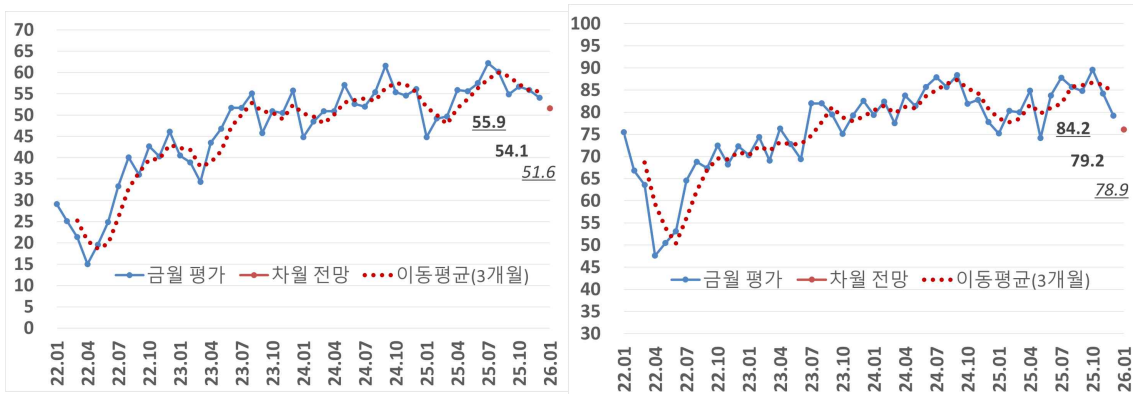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²⁾)

■ 자재비지수는 소폭 하락, 자재수급지수는 하락

- 자재비³⁾ 경기실사지수는 54.1(55.9→54.1)로 소폭 하락했지만 전월과 큰 차이는 아니었으며(-1.8p). 차월(51.6)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2.5p).
 - 수도권(57.4→55.1)은 소폭 하락(-2.3p), 지방(55.2→53.6)도 소폭 하락함(-1.6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9.2(84.2→79.2)로 전월에 이어 하락했으며(-5.0p), 차월(76.1)에도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3.1p).
 - 수도권(80.9→73.5)은 크게 하락(-7.4p), 지방(85.7→81.8)도 전월에 이어 하락함(-3.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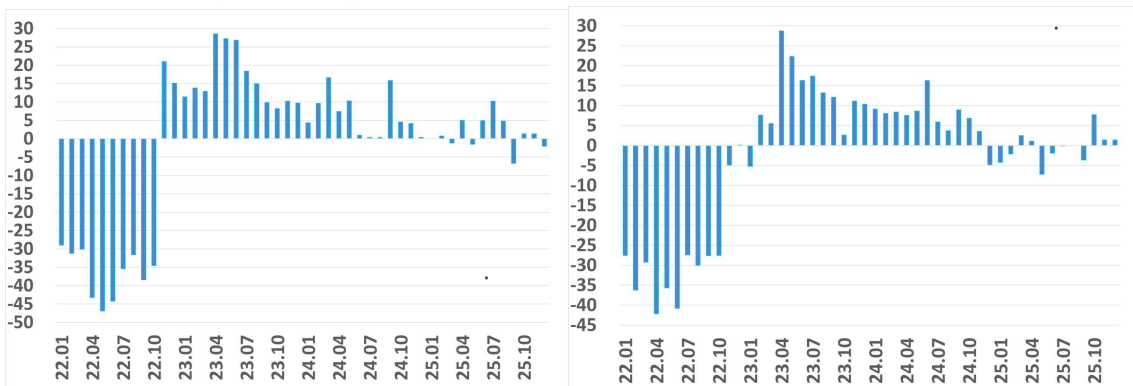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5년 12월 평가	54.1	56.1	55.1	53.6	43.8	72.4
	2026년 1월 전망	51.6	52.6	57.1	49.1	50.0	67.2
자재수급	2025년 12월 평가	79.2	77.8	73.5	81.8	62.5	94.8
	2026년 1월 전망	76.1	78.9	69.4	79.1	59.4	87.9



〈자재비 체감〉

〈자재수급〉



〈자재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2)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3)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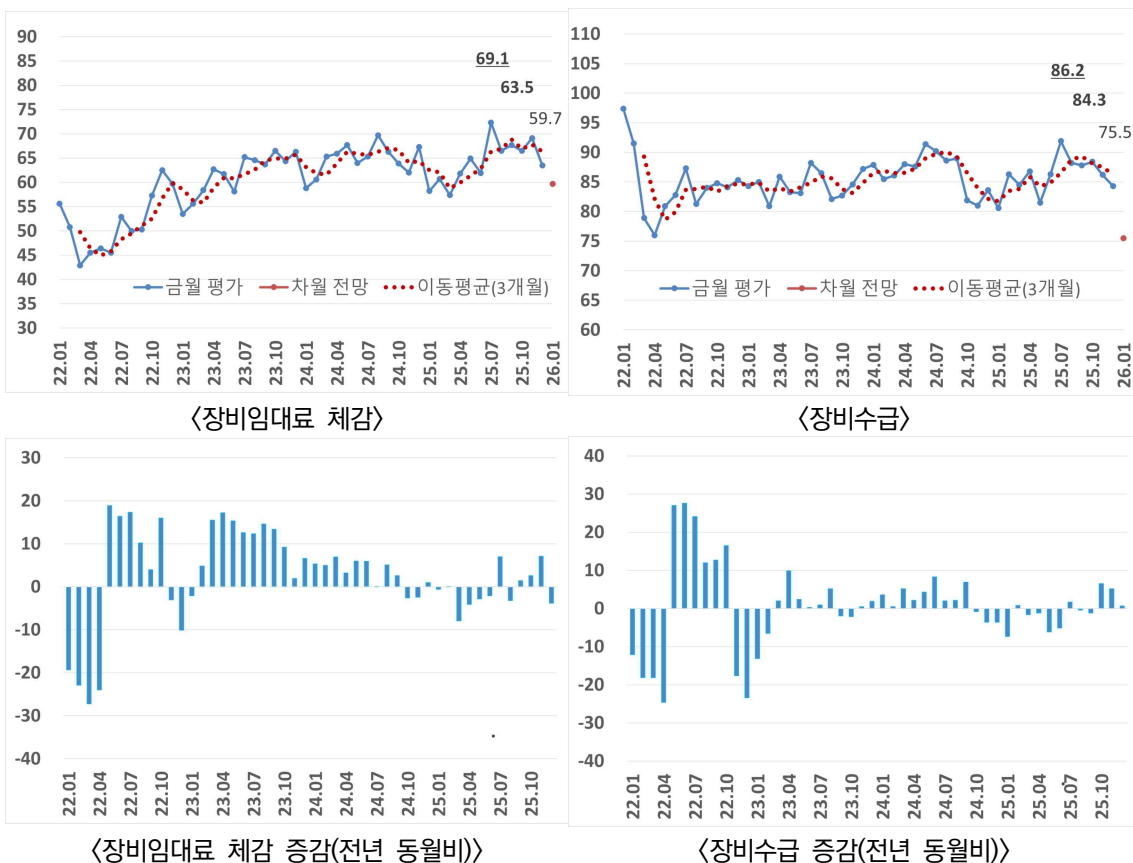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하락, 장비수급지수는 소폭 하락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3.5(69.1→63.5)로 하락했으며(-5.6p), 차월(59.7)에도 지속적인 하락이 전망됨(-3.8p). 주요 원인으로서는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함께 일부에서 지적된 건설장비의 공급업체들이 관련 노조 등을 앞세워 임대료 단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들 수 있음.
 - 수도권(68.1→63.3)은 하락(-4.8p), 지방(69.5→63.6)도 하락함(-5.9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4.3(86.2→84.3)으로 전월에 이어 일부 하락했으며(-1.9p), 차월(75.5)에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8.8p).
 - 수도권(83.0→81.6)은 소폭 하락(-1.4p), 지방(87.6→85.5)도 소폭 하락함(-2.1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5년 12월 평가	63.5	67.3	63.3	63.6	53.1	84.5
	2026년 1월 전망	59.7	60.2	61.2	59.1	53.1	75.9
장비수급	2025년 12월 평가	84.3	83.6	81.6	85.5	68.8	103.4
	2026년 1월 전망	75.5	83.0	67.3	79.1	53.1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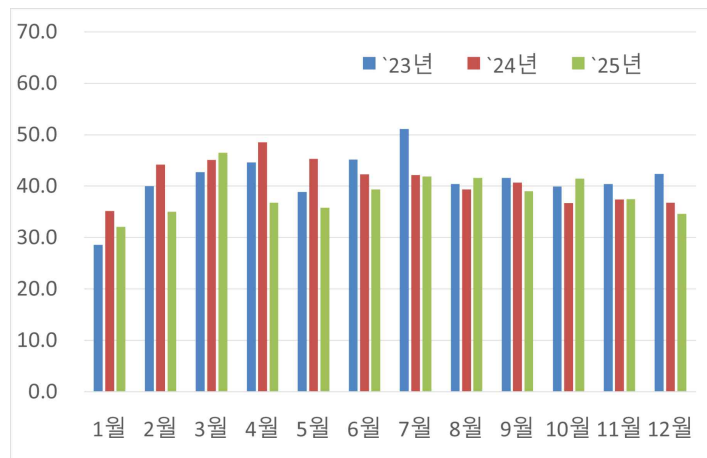


참고: 2025년 1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4.6	36.8	28.6	37.3	21.9	44.8	
	차월 전망	33.3	26.3	42.9	29.1	40.6	39.7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37.1	40.4	49.0	31.8	56.3	34.5
		차월 전망	39.0	36.3	61.2	29.1	71.9	34.5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37.7	31.6	65.3	25.5	75.0	32.8
		차월 전망	34.0	32.2	55.1	24.5	59.4	32.8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2.8	53.8	53.1	52.7	50.0	58.6
		차월 전망	50.9	43.3	63.3	45.5	65.6	53.4
	자금조달	금월 평가	53.5	51.5	63.3	49.1	62.5	58.6
		차월 전망	47.8	42.7	57.1	43.6	59.4	53.4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71.1	67.8	63.3	74.5	50.0	94.8
		차월 전망	62.3	55.6	59.2	63.6	53.1	82.8
	인력수급	금월 평가	77.4	75.4	65.3	82.7	62.5	103.4
		차월 전망	71.1	73.1	57.1	77.3	56.3	87.9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54.1	56.1	55.1	53.6	43.8	72.4
		차월 전망	51.6	52.6	57.1	49.1	50.0	67.2
	자재수급	금월 평가	79.2	77.8	73.5	81.8	62.5	94.8
		차월 전망	76.1	78.9	69.4	79.1	59.4	87.9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3.5	67.3	63.3	63.6	53.1	84.5
		차월 전망	59.7	60.2	61.2	59.1	53.1	75.9
	장비수급	금월 평가	84.3	83.6	81.6	85.5	68.8	103.4
		차월 전망	75.5	83.0	67.3	79.1	53.1	91.4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